

안전실천을 위한 문화·인식·행동·유도·역할의 중요성

(주)중앙타프라

취재 · 사진 | 김성대 기자(gjshu002@safety.or.kr)



전 명기 이사

근로자 안전활동 유도, 회사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우리 산업현장이 안전하려면 경영진·관리자의 안전의식 수준이 높아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전 직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일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이었습니다. 일하다가 다치고 싶어 다치는 근로자가 세상에 어디 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무지나 부주의 등에서 오는 근로자들의 불안정한 행동을 경영진과 관리자들이 끊임없이 점검하고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의 안전은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관리자가 안전을 강조해도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모든 탓을 근로자에게 돌려서도 안됩니다.

저는 회사에서 안전을 행할 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근로자들 스스로 안전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이 계속된다면 근로자들은 자연스럽게 회사의 안전활동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경영진과 관리자 그리고 근로자들 모두 이와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곳이 바로 안전한 회사라고 확신합니다.

충남 예산시에 위치하고 있는 (주)중앙타프라는 회사명에서부터 남다른 의미가 있다. '타프라'는 Taste(맛)와 Flavor(향기)가 조합된 것으로 더욱 맛있는 식품소재와 후각을 만족시키는 향료·시즈닝을 만들어 공급해 나가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실제로 이곳에서는 이를 위해 단순히 대기업에 식품소재를 납품하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더 맛있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기술 개발을 꾸준히 해왔다. 그 결과 (주)중앙타프라는 들깨차 분말·오미자차의 제조방법 특허와 인스턴트 단팥죽 및 그의 제조방법 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 기술을 통해 자체적으로 혼합음료를 생산하고 있다.

지난 1990년 설립된 이래 불과 20여년 만에 이처럼 회사가 성장할 수 있었던데에는 경영진과 근로자들이 한 가족처럼 지내는 회사분위기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아울러 이같은 분위기는 안전활동에도 퍼져 회사 설립 이래 하루도 빠짐없이 무재해를 이어가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모든 근로자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으로 안전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주)중앙타프라를 찾아가 봤다.

안전은 우리 모두의 약속

이곳 현장을 둘러보니 안전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그 출발은 이곳의 경영방침에서부터 시작한다. (주)중앙타프라의 2011년 경영방침은 '집중하라', '문제를 이해하라', '질문하라', '차이를 존중하라', '협업하라' 등 5가지다. 이들 방침은 안전활동에도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다. 이곳 경영진과 관리자들은 현장에 어떤 사고 위험이 있는 지 '집중' 해서 점검활동을 펼치고, 왜 문제가 되는지 근로자들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이해' 하려고 노력한다. 또 변담·설문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질문' 해 보고 있다. 이어서 근로자들이 말하는 것과 경영진이 생각하는 것이 다를 경우에는 우선 그 '차이를 존중' 하고 서로 '협업' 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경영진과 근로자 모두 자연스럽게 안전사고 위험요소를 원천에서부터 차단하고 있다.

안전 교육·시설 투자 확대

거의 모든 제조업체가 그렇듯 이곳에도 생산과정에 따른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다. (주)중앙타프라 예산공장에는 분말원료, 농축액, 기능성 음료를 생산하기 위해 진공건조기, 분무건조기, 진공농축기, 분쇄기, 3단 롤러 등의 설비가 들어서 있다.

이곳 경영진들은 이들 설비를 이용해 검은콩 농축액, 생크림 분말 등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화상을 입을 염려가 있고, 음료 생산 과정에서는 컨베이어에 감김, 협착 등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기계가 가동되는 소음으로 인해 청력



손상을 입을 우려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같은 사실을 근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재차 확인한 이곳에서는 먼저 안전교육에 앞장섰다. 위험기계 사용 시에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계 준수토록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안전기관에 의뢰해 안전교육도 진행했다. 또 매일 아침 조회를 통해 작업 전 반드시 안전구호를 외쳐 안전의식을 높이고 있다. 근로자들의 청력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귀마개 등 보호장비도 공정별·개인별로 당연히 지급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생산설비에 대한 안전성 투자도 아끼지 않는다. 새로운 설비를 구매·설치할 때에는 무엇보다 근로자들의 안전을 우선시 하고 있는 것이다.

안전 분위기 조성에 힘써

(주)중앙타프라의 대표적인 안전관리 방침은 공장 운영지침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곳 예산공장에서는 3정 운동과 5S 운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다른 곳과 차별점은 이들 방침이 관리자들의 목소리가 아닌 근로자들로부터 나왔다는 것이다.

근로자들 스스로 이런 방침을 정할 수 있었던 내면에서는 가족주의를 찾아볼 수 있다. 이곳에서는 직원 모두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다. 1990년 4월 설립 이래 현재까지 무재해가 계속된 가장 큰 밑거름이 바로 이것인 것이다.

경영진과 근로자 모두 서로를 부모님처럼, 형처럼, 동생처럼 생각하고 있으니 서로의 안전을 챙기는 것은 당연지사. 또 회사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시기별로 단합대회를 열고 있다.

이들 모두는 결국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이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으로 작용했다. 근로자들의 평균 연령이 40대 초반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이곳이 얼마나 안전하고 행복한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근로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주)중앙타프라. 앞으로도 이와 같은 안전관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2)

